

www.bsm.or.kr

2016년 가을호 • 통권9호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동행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해상에서 위험에 처한 어느 부부의 이야기

부부가 해상에서 위험에 부딪혔는데
부인을 돌보지 않고 남편 혼자 도망쳤을 때,
부인이 마지막에 한 말은……?

한 쌍의 부부가 유람선에서 해상재난을 당했는데, 구조정에는 자리가 하나 밖에 없었다. 이때 남편은 부인을 남겨둔 채 혼자 구조선에 올랐고, 부인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남편을 향해 소리쳤다. 선생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학생들에게 질문했다. “여러분, 부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학생들은 모두 격분하여 “당신을 저주해요, 내가 정말 눈이 빠졌지!!”라고 말했다. 이때 선생님은 한 학생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학생에게 다시 질문했다. “선생님, 제가 생각했을 때 부인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너 이 얘기 들어봤니?” 학생은 머리를 흔들며 “아니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감격하며 “정답이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배는 침몰했으며 남편은 딸을 잘 키웠고, 몇 년 후 병으로 죽었다.

후에 딸이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아빠와 엄마가 해상여행을 갔었을 때 엄마는 이미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때 마침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빠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버릴 수가 없었다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다 속에서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 우리의 딸 때문에 당신만 깊고 깊은 해저 속에 잠들게 할 수 밖에 없었어.”

이야기를 끝내자, 교실은 조용해졌다.

선생님은 알 수 있었다.

학생들도 이미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았다는 것을…….





CONTENTS

- 02 권두이야기
해상에서 위험에 처한 어느 부부의 이야기
- 팀원들의 이야기
- 04 ① 위암 is / 이재승 소화기내과 과장
- 06 ② 암환자의 영양관리 / 김순옥 수녀 (영양팀 팀장)
- 09 ③ 호스피스 병동과의 만남 / 조미영 책임간호사
- 10 환자와 가족의 사랑 이야기
- 11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 12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NEWS
- 14 후원회 가입 안내
- 15 이용 안내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무엇인가?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 및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 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위암 is...

胃癌 Cancer of the Stomach



위암은 예방을 위해 좋은 식습관과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며, 조기진단될 경우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이재승
소화기내과 과장

위장에 생기는 종양은 위선암, 악성림프종, 위의 신경 및 근육조직에 생기는 간질성 종양, 육종(비상피성 조직에서 유래하는 악성종양), 신경내분비암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암은 위선암을 말합니다. 위선암은 위장 점막의 선세포(샘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커지면 덩어리를 형성하고 더 진행되면 림프절이나 혈류를 통해서 퍼질 수 있습니다. 위암은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조기 위암과 진행 위암으로 나뉘는데, 조기 위암은 림프절 전이 유무와 상관없이 암세포가 위장의 점막이나 점막하층까지만 생겨있습니다. 진행 위암은 암세포가 점막하층을 지나서 근육층 이상을 침범한 경우인데 림프절이나 혈관을 따라서 암세포가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암의 발생 빈도

2015년 통계 자료(중앙암 등록본부)에서 우리나라는 2013년 위암의 발생이 30,184건, 전체 암의 13.4%로 2위, 남녀 성비는 2:1로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암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이고, 여성 암 중에는 4번째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연령별로는 70대가 27.2%, 60대가 26.0%, 50대가 23.5%였습니다.

위암 원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되나 식사와 관련해서는 질산염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건조, 훈제된 고기, 소시지 종류 등), 짠 음식, 신선하지 않은 상한 음식, 흡연 등이 위암의 발생을 높이는 요인들입니다. 담배연기는 청산가스, 비소, 페놀 등 69종의 발암 물질과 4,000여 가지의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위암 발생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을 위장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헬리코박터균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위암 발생이 높고,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었던 경우는 발생위험이 2~3배 증가해서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한 인자임을 보여줍니다.

위암 증상

위암 초기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병이 진행되면 상복부 불편감부터 식후 복부 팽만감, 심한 통증, 식욕부진, 구역질, 체중감소, 특히 병변이 위장과 식도가 만나는 부위(분문부)에 있으면 오심, 구토가 두드러집니다. 병의 초기에는 증상만으로 진단할 수 없고, 복부에서 덩어리가 만져질 경우 병이 오래 되어 주변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류를 따라서 병이 퍼질 경우에는 간으로 전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진행 위암에서는 간에 대한 평가도 같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빈혈이 있거나 대변검사에서 잠혈(피가 섞여 나오는 것)이 있으면 위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서 위장에 출혈을 일으키는 병변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암 진단

위암은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병변을 확인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위암이 진단될 경우에는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CT)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시행하여 위장 주변 장기로 병이 퍼져 있는지 평가합니다.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초음파 내시경 검사로 암이 얼마나 침범하였는지 알아봅니다.

위암 치료

1) 내시경적 치료

조기 위암은 병변이 점막층에만 있으며 크기가 2cm이내, 림프절 침범이 없는 경우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ESD)로 치료합니다. 위벽에 생긴 종양을 내시경을 통하여 제거하는 방법인데, 전신마취가 필요 없으며 시술 시간이 짧고, 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회복기간이 짧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혈, 천공의 부작용 위험이 있으며, 드물지만 1% 미만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술 후에는 반드시 정기적인 경과 관찰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외과적 수술 치료

외과적 수술은 위암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병변을 제거하고 주변의 림프관과 림프절을 모두 제거하는 근치적 위절제술을 시행하는데, 이 방법은 암이 발생한 부위와 암이 주변으로 퍼질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을 수술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3) 항암 치료

첫째, 암이 전이를 일으켜서 절제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둘째, 근치적 수술 후 재발 방지 목적, 셋째, 수술 전 항암치료로 암의 크기를 줄여서 수술 효과를 좋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술 후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나와 병기 결정 후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 후 생존율

암 환자가 치료를 받고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나았다고 판단하므로 위암은 조기에 진단될 경우 완치가 가능합니다. 수술 후에 림프절 전이와 원격전이 유무에 따라서 병기를 결정하는데 5년 생존율은 Ⅰ기의 경우는 78%, Ⅱ기는 58%, Ⅲ기는 34%, ⅣA는 20%, ⅣB는 8%, Ⅳ기는 7% 정도입니다.

위암 예방

위암 발생에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데 좋은 생활습관의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흡연은 비흡연자에 비해 위암의 위험이 1.5~2배 정도 높습니다. 질산염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은 가능한 피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치료는 가족력이 있거나 위암에 대해 걱정이 많은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위암을 예방을 위해 좋은 식습관과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며, 조기 진단될 경우에 완치될 수 있습니다.

암환자의 영양관리

균형 있는 식사를 섭취하는 것은 환자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술과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잦은 금식, 식욕감퇴로 체중감소, 쇠약, 피로감 등이 급성, 만성적으로 생겼을 때 환자는 어떤 영양관리가 필요할까요?



감순옥 수녀
영양팀 팀장

1. 기본 식사 방법

-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 매끼 고기나 생선, 두부, 콩과 같은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먹고 채소 반찬도 골고루 먹습니다.
- 과일을 하루 1~2번 정도, 우유 및 유제품은 하루 1개(200ml) 이상 먹도록 하며 우유가 맞지 않을 경우 요구르트, 두유, 치즈 등을 이용합니다.
- 양념과 조미료는 적당히 사용하고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합니다.

2. 상황별 식사 방법

식욕부진일 때

- 식사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먹고 싶을 때 소량씩 자주 먹도록 합니다. 보통 아침에 식욕이 좋다고 합니다. 이때 가능한 많이 먹도록 하세요.
-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나 다양한 음식을 먹고, 한두 가지 음식만 입에 당긴다면 그 음식만이

라도 충분히 먹도록 합니다.

- 크래커와 같은 마른 음식이나 오이, 신선한 채소, 사과 주스와 같이 시원하고 맑은 무가당 음료를 먹습니다.
- 식사 전에 물이나 음료를 많이 마시면 식욕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당히 먹도록 합니다.
- 식탁 분위기 또는 식사시간과 장소를 바꾸어 봅니다.(식탁보와 그릇 등)
- 동일한 양을 먹더라도 영양가가 높은 고열량, 고단백 간식을 먹습니다.
 - 밀크셰이크, 꿀차, 영양보충음료 등
 - 흰죽 대신 흰죽에 [기름 + (고기 · 생선 · 두부 · 계란 · 전복 · 새우) + (깨 · 잣)] 추가
 - 우유에 [코코아 + 영양보충제 + (땅콩 · 호두 가루) + (조제분유 · 탈지분유)] 추가

매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이 있을 때

- 소량으로 천천히 자주 먹습니다.
- 소화가 잘 되도록 충분히 씹고,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 뜨거운 음식보다는 차고 시원한 음식을 먹습니다.
- 너무 단 음식(쿠키, 케이크 등), 기름진 음식(튀김, 전 등), 양념이 강한 음식, 냄새가 심한 음식은 피합니다.
- 식사 후 바로 움직이지 말고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 토한 후에는 머리를 약간 높인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차가운 물이나 구강세정제로 입안을 헹굽니다.

구내염이나 구강건조증이 생길 때

- 딱딱한 음식이나 매운 음식, 너무 뜨거운 음식을 피합니다.
- 자극이 없으며 씹고 삼키기 편한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합니다.
 - 으깬 감자, 같은 죽, 요거트, 밀크셰이크 등

- 식사에 국물이나 음료를 곁들여 삼키기 편하도록 합니다.
- 물은 소량씩 자주 섭취 합니다.
- 입안이 쓰리면 빨대와 어린이 스푼을 활용하여 음료와 음식을 먹습니다.
- 침이 잘 분비되도록 무설탕 껌이나 캔디를 먹습니다.
- 레몬을 얇게 썰어 입에 살짝 물거나, 유자차처럼 달거나 신 음식을 먹으면 침 분비가 많아집니다.

변비가 심할 때

- 아침에 일어난 후 또는 자기 전에 차가운 물을 마셔 장운동에 도움을 줍니다.
- 물은 6~8컵/1일 또는 몸무게 1kg당 30cc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음식을 너무 적게 먹지 않도록 합니다.
- 잡곡, 고구마, 콩, 신선한 야채와 과일, 해조류와 같이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습니다.
- 규칙적인 활동과 운동을 하고 움직이지 못할 경우 배를 부드럽게 문질러 장운동을 돕습니다.
- 꽃감, 초콜릿, 치즈, 달걀 등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피합니다.
- 배변 시간 30분 전에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설사 증상이 있을 때

-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전해질을 포함한 이온 음료도 도움이 됩니다.
- 너무 차거나 뜨거운 음식, 우유와 유제품은 피합니다.
- 기름지거나 튀김음식, 껌질째 먹거나 질긴 생 채소는 피합니다.
- 카페인인 든 커피, 홍차, 녹차, 탄산음료, 초콜릿 등은 피합니다.
- 미음, 맑은 스프와 같은 유동식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3. 특수 영양보충식품

영양보충식품은 식사량이 적은 경우 활용하여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분말을 액체에 타서 드시거나 캔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Tip! 기호에 맞지 않을 경우 과일을 넣고 갈아 마셔도 좋습니다.

예) 바나나 + 영양보충음료 = 바나나쉐이크 / 딸기 + 영양보충음료 = 딸기쉐이크

	정식품	대상	메디푸드
일반 (음료)	 그린비아 마일드케어 200kcal, 단백질 8g	 뉴케어 200kcal, 단백질 8g	 메디푸드 200kcal, 단백질 8g
고열량 고단백	 ① 그린비아 1.5 300kcal, 단백질 8g  ② 고단백 솔루션 200kcal, 단백질 8g	 ① 뉴케어 칼로리1.5 300kcal, 단백질 8g  ② 하이프로틴 200kcal, 단백질 13g	 ① 메디푸드 1.5 300kcal, 단백질 12g  ② 무스웰 고단백(푸딩) 85kcal 단백질 6g
당뇨	 그린비아 디엠 20kcal, 단백질 8g	 뉴케어 당뇨식DM 200kcal, 단백질 9g	 메디푸드 당뇨식글루트를 200kcal, 단백질 9g
기타	 메디푸드 스탠드 1포(47g) 200kcal 단백질 8~9g	 뉴케어 데일리 1포(35g) 150kcal 단백질 5g	 무스웰 푸딩 1개(100g) 85kcal 단백질 6g  뉴케어 푸딩 1개(100g) 75kcal 단백질 6g

4. 영양강화제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특정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특정 영양소를 보충할 때 사용하는 제제입니다.
(식용유, 콘시럽, 탈지분유도 칼로리 및 단백질 추가제로 사용 가능합니다.)

Tip! 활용법 - 흰죽에 하이칼을 혼합하면 일반 섭취량보다 1.5배 추가 열량섭취 가능
- 우유나 두유에 프로맥스, 프로틴퍼펙트 첨가하여 단백질 섭취
- 조리시 MCT분말, 오일을 적절히 넣어 지방흡수를 도움

탄수화물 강화제	단백질 강화제	지방 강화제	탄수화물·지방 강화제	탄수화물·단백질 강화제	섬유소 강화제
 하이칼 (한국메디칼푸드)	 프로맥스 (한국메디칼푸드)  프로틴퍼펙트 (대상)	 MCT오일 (한국메디칼푸드)  MCT 파우더 (대상)  MCT 오일 (대상)	 멀티칼 (한국메디칼푸드)	 뉴케어 쿼커트 (대상)	 식이섬유 이지 (한국메디칼푸드)

참조 사이트 및 구입처

정식품(그린비아) 080-930-8888

대상웰라이프(뉴케어) 080-996-5000

한국메디칼푸드(메디푸드) 080-468-7001

대웅(메디웰) 080-550-8275

호스피스 병동과의 만남



2016년 3월 16일, 그 날을 잊지 못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부서이동 후 말기암환자들을 돌보고 간호하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서이동을 결심했지만 말기암환자를 간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내과병동에서 말기암환자를 돌보았지만 호스피스병동과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에는 차분한 병동 분위기, 수녀님의 기도 소리, 자원봉사자의 슬픈 하모니카 연주, 환자나 보호자들의 울음소리가 날 때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이런 무거운 분위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낯선 보호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 료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데 그들의 슬픈 얼굴에서 환자의 컨디션을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입원 상담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가족들이 “통증 없이 하루라도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감정이 메말랐다고 느껴질 만큼 눈물이 나지 않았으며, 울고 있는 가족들에게 “힘드시죠?”라는 말 한마디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감히 아픈 환자와 가족들의 슬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를 포기하고 이곳 호스피스 병동으로 왔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부정, 분노, 우울 등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마지막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환자를 지극 정성으로 돌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간호사로서 힘든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보듬어 마지막 삶을 잘 마무리 하도록 해야지 다짐하였지만, 일이 바빠서 소홀할 때 초심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 병원 내 사별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간호했던 가족들을 만나니 반갑고 건강하신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저를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안부를 물어주셨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아프고 몽클했습니다. 또 다른 가족 한분은 “그 동안 잘해줘서 고마웠어요.”하며 흐느껴 울면서 안아주셨는데 너무 죄송했습니다. 입원해 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제가 이분들로 하여금 인생 공부를 하고 또 성장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순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1분 1초라도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간호하며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간호사가 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조미영
책임간호사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로 부족한 사랑하고
보고 싶은 엄마

고 유*례님의
딸 김*은 드림

엄마!

엄마가 내 곁을 떠나 예수님 곁에 가셨다는 것이
이제껏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엄마에게 편지를 쓰
다보니 정말 많이 그립고 보고 싶어 눈물이 흐릅니다.

제가 올면, 엄마가 하늘에서 보시고 마음 아파할까봐 울지 않고
씩씩하게 살았어요. 엄마는 예수님 품에 안겨 편히 쉬고 계세요.

저는 그저 열심히 예수님께 엄마의 영원한 안식만 기도했어요.
가끔씩 엄마가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는 주체할 수 없었어요.

제 걱정만 하시다가 평생 희생하신 우리 엄마,

엄마를 화장하던 날, 생각만 해도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 손에
쥐어주었던 묵주를 생각하며 성모님께서 엄마가 두렵지 않게 뜨겁지 않게 치마
폭으로 감싸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을 것이라 믿으며 기도해요.

엄마!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그립고 보고 싶은 엄마...

엄마 딸, 엄마 마지막 말처럼, 예쁘게 이 세상을 살아갈게요.

그러다가 주님이 주신 소명이 끝나서 하늘로 가는 그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때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고, 아프지도, 슬프지도 않을 거라 믿어요.

그곳에서 우리 두 손잡고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 속에서 웃으며 걸어가요.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태어나게 해 주신 것부터 저를 한없이 사랑해 주신 것.

그리고 더 잘해 주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엄마.

우리 엄마,

이제 아프지 말고, 제 걱정도 이제 그만하고 편히 쉬세요.

영원히 사랑해요, 우리 엄마.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2016년 제10차 완화의료도우미 교육

2016년 제10차 완화의료도우미 교육을 9월 5일 ~ 7일까지 100명이 3일 동안 본원 4층 베네딕도홀에서 교육을 받았다. 또 본원에서 30명이 실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6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주간 행사

제7회 사진전을 10월 10일 ~ 25일, 본원의 1층 로비와 10층 완화의료센터에서 열어 29점의 사진을 전시하였다. 완화의료센터에 환자와 가족들의 따뜻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돌봄을 홍보하고, 인식확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8권역 완화의료주간 합동캠페인

8권역 완화의료주간 합동캠페인이 지난 10월 13일에 경상대병원 주관으로 진주성에서 열렸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각 병원의 대표들이 모여 호스피스 인식확산을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멋진 캠페인이었다.



2016년 사별가족 만남의 날

2016년 사별가족 만남의 날이 10월 25일(10:30 ~ 15:30)에 있었다. 단기 사별가족 모임과 달리 1년간의 사별가족을 초대하여 위로와 추모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37명의 가족과 완화의료센터 팀원들, 자원봉사자, 그 외 관계자들을 합하여 90여 분이 함께 하였다. 추모미사와 뷔페식사, 공연 등을 통해 잠시나마 우리 곁을 떠난 분과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며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입원환자와 가족을 위한 집밥 나누기

10월 25일 집밥이 그리운 환자와 가족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였다. 집에서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식사 시간을 가졌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NEWS

1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심화교육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소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심화교육이 이루어졌다. 주제는 '자원봉사자들의 영적 돌봄'과 MBTI, 의미요법 등으로 교육은 전영주(아가페) 수녀님의 지도로 이루어졌다.



2

국립암센터 완화의료주간 행사 및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식 참석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완화의료주간 자원봉사자의 날에 본원 김두순(루시아), 장쌍란(엘리사벳), 이두이(보나), 이정아(스텔라), 이해영(리디아) 님이 우수자원봉사자로 수상하였다. (우수자원봉사자상은 1,000시간 이상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우수봉사자로 추천된 분들이 국립암센터 병원장 상을 수상). 이들은 목욕봉사, 미술요법, 발마사지, 심리적 지지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다.

3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요일별 친교 단합회

2016년 10월 달에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소진예방과 화합을 위한 요일별 모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4

가족교육에 동참하는 호스피스 봉사자들

본원은 매주 목요일 가족교육(환자와 마음 나누기, 통증과 증상관리,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기, 돌봄 기술 익히기, 영양관리 등)이 이루어지는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마련하였다.



다양한
요법 시간
안내



요일	시간	내용
월	10:30	오카리나 연주&기타와 노래 / 격월
	10:30	여성중창단노래 / 격월
	10:30	창, 한국무용, 오카리나연주 공연 / 월1회
화	10:30	리본공예 / 월1회
	14:30	웃음치료 / 월3회
	14:30	茶요법 / 월1회
수	10:30	원예요법 / 1, 3, 5주
	10:30	아코디언연주 / 2, 4주
	14:30	명상요법 / 매주
목	10:30	가족교육 / 매주
	14:30	종이공예 / 월1회
	15:30	미술요법 / 매주
금	08:30	하모니카연주 / 매주
	10:30	영양관리교육 / 월1회
토	10:30	푸른사랑음악회 / 월1회
	10:30	플루트&기타 연주와 노래 / 매주
	10:30	색소폰연주 / 월1회
	10:30	플루트연주&우쿨렐레연주와 노래 / 월1회
수시		생일, 축일, 기념일 이벤트, 사진요법, 다양한 추억 만들기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후원회 가입안내

호스피스 후원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사무실의 Fax, 전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후원회원에게는 호스피스 소식지를 발송해 드리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 후원기금 참여신청서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연 락 처	

※ 부산가톨릭의료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후원하시는 모든 기부자 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기부약정의 효력으로 영구 보관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동의서명 :

금액 : 일금 **원 (₩)**

☐ 일시기부 :

☐ 정기기부 : 매월 원 회(년)

※ 납부안내 : ☐ 무통장 입금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자동이체(CMS)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동의서명 :

※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후원기금은 소정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 펼치는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 위한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실천 사업을 지지하며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20 년 아 이

약저인
그외인

(서명)

신청서 보내주실 곳 4857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후원회 관련 문의사항 Tel 051 933 7133 Fax 051 932 8636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이용안내

본원 입원 환자

담당의
완화의료팀
의뢰

완화의료팀
소속의사
진료

완화의료팀
병동면담
및 안내

입원

타 기관 환자

타 의료기관
의료 정보

완화의료팀
소속의사
진료

완화의료팀
병동면담
및 안내

입원

- ※ 구비서류 ①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1개월 이내)
② 최근 검사자료(CD 및 영상 판독지, 조직검사 결과지)
③ 현재 복용중인 약 처방전
④ 의무기록사본 등

진료시간 및 진료과 안내

- 예약 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진료예약 : 051) 933-7087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2시 30분 (일요일, 공휴일은 휴진)
- 입원형 호스피스 : 혈액종양내과 진료 051) 933-7253
- 가정형 호스피스 : 가정의학과 진료 051) 933-7971

진료상담 및 문의

- 입원형 : 051) 933-7133, 7100
- 가정형 : 051) 933-7969
- F A X : 051) 932-8636



|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진료시간표 |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
오후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혈액종양 내과	—

※ 단, 가정형 호스피스 진료는 가정의학과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상담 T. 051) 933-7969

완화의료센터 입원 상담 T. 051) 933-7133

완화의료센터 입원 진료예약 T. 051) 933-7087

| 찾아오시는 길 |



- 서면방면 20, 24번
- 부산역방면 22, 27번
- 동래방면 131번
- 해운대방면 39번
- 마을버스 남구2, 2-1, 8번
- 부산성모병원 정류소 하차(셔틀버스 운행)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T 051 933 7114 F 051 932 8600